



# 2022-1 12주차 현대소설론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영미

# 수업 순서

## 한국 현대소설의 역사적 전개3

01

식민지 상황과 근대소설의 양상

02

모더니즘의 기법과 정신

03

풍자와 해학, 토속 세계와 전통

04

여성작가와 여성주의의 등장

## 기말고사 대체 과제

- ▶ ①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읽고 (파일 업로드)
- ② 드라마로 제작된 <소나기>를 감상한 후 (TV문학관, 유튜브 링크 공유)
- ③ 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 손으로 써서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
- ▶ 스마트캠퍼스 과제 게시판에 제출

마감: 6월 14일(화) 23시 59분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01. 식민지 상황과 근대소설의 양상



# 소설의 양식적 확대와 주제의 다양성

▶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사상적 탄압

▶ 집단적 이념 추구의 경향 → 일상적 개인의 삶에 기초



# 조선 프로예맹의 해체 이후

▶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가

▶ 장편소설의 양식 확대

# 대표적 장편소설

▶ 염상섭, 『삼대』(1931)

▶ 채만식, 『탁류』(1938). 『태평천하』(1940)

▶ 박태원, 『천변풍경』(1937)

# 역사소설의 등장

- ▶ 홍명희, 『임꺽정』(1939)
- ▶ 김동인, 『운현궁의 봄』(1934)
- ▶ 현진건, 『무영탑』(1939)  
박종화, 『금삼의 피』(1936) 등





## 02. 모더니즘의 기법과 정신



# 모더니즘적 전환의 실체

- ▶ 도시와 시정의 일상에 묶여 있는 개인의 모습
- ▶ 개인적 주체의 내면과 숨겨진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는 상징적 기법과 심리주의적 접근
- ▶ 성적 욕망에 대한 관심, 일상적인 것에 대한 의미 부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의 특징

#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가

▶ 박태원



「소설가구보씨의 일일」  
「성탄제」

▶ 이태준



「달밤」  
「가마귀」

▶ 이효석



「돈(豚)」  
「메밀꽃 필 무렵」

▶ 이상



「지주회시」  
「날개」

# 이상, 「날개」(1936)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머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아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탄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탄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두-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서너리(사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03. 풍자와 해학, 토속 세계와 전통**



# 풍자와 해학, 토속 세계와 전통

▶ 풍자성

▶ 해학성

▶ 토속성



# 풍자와 해학, 전통의 대표 소설가

▶ 채만식



「레디메이드인생」 「김강사와 T교수」  
「치숙」

▶ 유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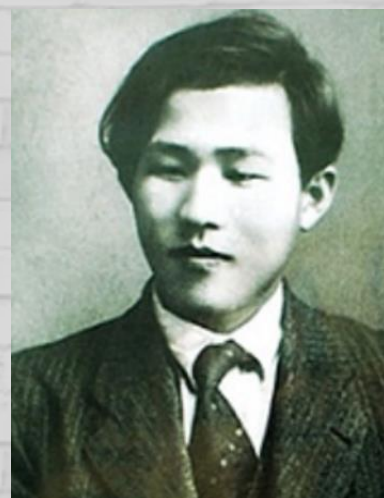
「김강사와 T교수」

▶ 김유정



「봄·봄」  
「동백꽃」

▶ 김동리



「무녀도」  
「황토기」

# 김유정, 「봄봄」(1935)

“강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해가 뭘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톨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단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건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더 잘 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나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말 없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적 여러 나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그만 병병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덜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오르면 벌 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강인님이 어린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 그럼 말이다, 강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어 람,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강가들여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을까 봐서 지레 팔팔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젠 참 아무것도 아니다. 속적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제 불까 했다. 마는 우리는 강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 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일 적이면 겨우 눈어힘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에미 키두!”

하고 눈독에다 침을 뱉, 뺏는다. 아무리 갈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뼉뼉락말락 뱃살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폭폭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해도 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주 이니까 뻥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년쫓년쫓지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물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줘소사. 그러면 담원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죠히까.’ 하고, 지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강인님이 입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에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죽 거를지는 강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는 걸 모르고 냇병이라냐,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 끈 조금도 실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로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켜던 벼 담근 키를 그냥 땅바닥에 탈럭 떨어지며 나도 탈럭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동아 오른 톨 한 숟을 톨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쑥쑥 문대며 강인님의 얼굴 을 쳐다보았다. 눈 가운데서 강인님도 이상한 눈물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넌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톨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강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결빙결빙 독으로 올라오더니 같은 참 내 먹살을 응겨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러다 말면 누굴 망해 볼 속셈이나. 이 대가릴 까들 자식?”

우리 강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바릇이 아주 뭉텸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아놈의 강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 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덩이 찌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 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 참동 덕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같 하고, 사람 갈 치고, 그리고 생김 생김질 호박개 같아야 하는 거지만 강인님은 외양이 독 됐다. 강인에게 달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단가 예법노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 해 가들에는 영락없이 땅이 폭폭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지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몰라안는다. 이 바람에 강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길 커다란 황소 한 놈이 걸로 엉금엉금 기어틀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강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계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강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펌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뽕잠 잔 다고 물영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뺨게 해 찼다. 사날씩이나 견송 공공, 알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물상이 되지 않았는가.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 되면 너 강가들지 않냐.”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그 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들 품 들일 눈을 온자 살아 놓으니까 강인님도 눈발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들에 와서 온인을 시켜 줘야 큰 경우가 좋지 않겠냐. 벼성을 적적 뜰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조걸 무슨 온인을 한다구 그러니 원!”

하고 남 낮객만 불려 주고 고안이다.

굴김에 그저 아놈의 강인님, 하고 덧돌에다 메곤코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꼭꼭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글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강가들 를 러 갔다가 오죽 뭇았냐 그대르 뭇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 04. 여성작가와 여성주의의 등장





# 여성주의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 ▶ 박화성, 최정희, 강경애, 이선희, 백신애 등 여성작가의 등장
- ▶ ‘여류’작가 또는 ‘여류’문학이라는 성적 차별 의식

# 1930년대 대표적 여성 소설가

▶ 박화성



「하수도공사」  
「비탈」

▶ 강경애



「지하촌」  
『인간문제』

▶ 최정희



「흥가」  
「지맥」. 「인맥」. 「천맥」

▶ 백신애



「꺼래이」  
「아름다운 노을」



1937년